

선거이 장군 충신각·전주 이씨 열부각 정신자산으로 키울 소중한 문화콘텐츠

근대까지 마을사람 구심점
우회도로 생기면 이전해야
현장사업 광산구가 나서길



선거이 장군 충신각과 전주 이씨 열부각 전경

정려(旌闈)는 조선시대 조정에서 풍속을 권장하기 위하여 충신·효자·열녀 등 모범이 되는 사람을 표창하고자 그 사람이나 그 후손이 살고 있는 마을 입구나 집문 앞에 세우던 붉은 문이다. 원도산 마을로 가는 옛길에 서있는 임란 영웅 선거이 장군 충신각과 전주 이씨 열부각이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정려이다. 이들 정려를 원도산마을에 보성 선씨가 일가를 이루고 살고 있고, 이 집안에 국가로부터 정려를 하사받은 자랑스런 선조가 있음을 암묵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들 정려를 전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오른쪽의 정려가 선거이장군 충신각이고, 왼쪽이 전주 이씨 열부각이다. 모두 광주공원이 조성되기 전, 원도산마을 입구에 해당하는 황룡강 너른 들녘을 바라보고 있다. 충신각은 원래 순조 1년(1801) 고내상에 건립되었으나 현 위치로 옮겨졌다. 이곳에는 충신각 이외에도 원산사(圓山祠)라는 사당이 있었다고 하나 흥선대원군 때 훼손된 후 복설되지 못하였다. 열부

각은 선대식의 처 전주 이씨의 효열을 기리기 위해 1913년 건립되었다. 주민들은 충신각과 열녀각 앞을 지날 때, 몸가짐을 가다듬고 조심하였다. 특히 보성 선씨 집안의 자손들은 관례(冠禮)를 행하거나 혼인할 때, 죽어 마을을 떠나 장지로 가기 전, 이곳 충신각과 원산사에 알리는 의례를 행해왔다. 그러나 충신각과 열부각은 며잖아 송정우회도로 조성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송정우회도로는 광주공항 정문에서 용보촌을 지나 선거이

장군 충신각에서 도산초등학교를 지나 광주공항 후문으로 연결된다. 35미터의 6차선 도로로 예정되어 있다. 보성 선씨 광산문중(회장 선거이)은 문중의 상징적 문화재를 원도산마을 인근으로 이전 복원하고자 부지를 물색 중이라고 한다. 최근 국가적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을 기리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늦게나마 선거이 장군에 대한 재조명도 2000년대 들어 행주산성이 있는 경기도 고양시와 그곳에 모여살고 있는 후손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국방부와 행주산성 아래



1592년 선거이 장군을 전라도 병마절도사로 임명하는 교지

에 위치한 사단인 '권을 부대'내의 16연대가 2016년 '선거이 연대'로 명명하고 그를 기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보성 출신 정전주 작가의 장편 역사소설 '칼과 술'이 출간되면서 소설의 주인공인 임란 영웅 선거이(宣慰使) 장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다. 이처럼 그의 생애와 업적뿐만 아니라 원도산마을에 남아있는 충신각과 열부각도 소중한 문화적 자산으로 주목하고 이를 교육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마을의 정신자산으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마을공동체를 풍부하게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문화컨텐츠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한재희 학생기자

학생기자 칼럼

서로의 소중함을 아는 원도산 사람들



김다인
(신문방송학과)

도산 초등학교를 지나 마을에 들어서면 트랙터가 하나 보인다. 차 한 대만 지나가도 모래가 자욱해지는 비포장도로를 걷다 골목길 사이로 굽이 들어가면 낡은 자전거를 몰고 마을을 유영하는 할아버지를 볼 수 있다. 지나치는 골목의 대문은 자주 열려 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나무의 가지가 제거하는 아주머니를 볼 수 있다. 이곳의 밤은 조금 더 푸른 것 같다. 이곳의 햇빛은 조금 더 따뜻한 것 같다. 경로당의 입구에는 할머니들의 신발이 예쁘게 줄지어 있다. 그늘진 정자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허허 웃으며 찍어주고 있다. 옆에 있던 할아버지는 슬그머니 프레임에서 벗어난다.

원도산 마을 사람들은 함께 사는 것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다. 몇 십년을 담배락 하나를 두고 더불어 살아온 그들은 독거(獨居)를 하게 되며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셰어 하우스를 통해 함께 살아가길 원한다. 노인들만을 위한 공간은 쉽지 않다. 마을의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을 위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다. 냉장고, TV 등 기본적인 비품은 갖출 수 있어야 하며 생존 아닌 생활을 누리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곳의 노인들은 마을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1964년 공군비행장이 생긴 이후로 소음에 고통스러워도 원도산 마을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마을의 인물로 국장 임방울과 투수 선동열의 활동과 성공을 지켜보았다. 원도산마을의 사계절을 수십 번 지켜보았으며 마을 담배락이 말

끔했던 시절부터 기울고 갈라지던 세월 속에 늘 함께 있었다. 그렇기에 원도산 마을의 변화는 더욱 특별하다.

광주 군 공항 인근 거주민들이 더 이상 소송을 하지 않아도 소송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지금까지 소송피해로 인한 소송건수는 25건, 이 가운데 8건만이 확정 판결되었다. 실제로 취재 차 원도산 마을에 방문하였을 때의 소음은 10분을 주기로 계속되었고 귀를 막는다고 들리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도망칠 수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곳 원도산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소음 피해에 고충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던 소방도로개설도 추진 중에 있다. 더불어 살 수 있는 스마트 셰어하우스도,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을 원칙으로 공동 판매의 장을 열 수 있는 로컬푸드 전문점도 계획 중에 있다. 마을의 변화에 대해 반기지 않는 주민이 있을까, 이런 마을의 변화가 만족스럽냐는 질문에 이곳에서 몇 십년을 살았다는 할머니는 "아주 좋지, 좋은 일이지"라고 말한다.

하지만 변화를 위해서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 길을 내기 위해선 정들었던 밭을 포기해야 하고 심어놓은 작물도 뽑아내야 한다. 공공시설에 흡수되는 사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실무자들은 고군분투한다. 주민들도 개인 시간을 쪼개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원도산 마을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특별하다. 마을 사람들은 공동체에 초점을 두고 더 나은 원도산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의 노력은 마을과 마을 사람들에 향해있다. 그들은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알기 때문이다. 총 72가구, 147명이 살고 있는 작은 동네 원도산 마을은 그렇게 성장해간다. 눈이 내리는 겨울, 12월의 원도산은 조금 더 따뜻하지 않을까.

이순신의 절친...시기·모략 받다가 전사

임란영웅 선거이 장군은 누구

선거이의 본관은 보성(寶城), 자는 사신(思愼), 호는 친친재(親親齋)이다. 조선 세조 때 공신인 평양공(平壤公) 선형(宣衡)의 증손이며, 도사(都事) 선상(宣祥)의 아들로 1550년(명종 5) 보성에서 태어났다.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임진왜란 당시 한산도대첩과 행주대첩 등에서 큰 공을 세웠으며, 병으로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군대를 이끌고 참전하였다가 왜군과의 싸움에서 전사한 인물이다.

20세 때인 1569년(선조 2)에 선전관으로 관직에 올랐고, 이듬해 무과에 급제했다. 37세 때인 1586년(선조 19)에 당상관인 정3품 절충장군의 지위에 올랐다. 1587년 두만강 녹둔도(鹿屯島)에서 함경도 경흥도호부의 조산만호로 있던 이순신과 함께 여진족의 공격을 막아내는 공을 세웠다. 1588년에는 거제현령이 되었으며, 성주목사를 거쳐 1591년에는 진도군수가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진도군수로 있으면서 당시 전라좌수영의 수군절도

공고 호탕한 성품, 한산도 대첩에서도 큰 공훈
유성룡 "바다에선 이순신 육지에선 선거이" 극찬

사로 있던 이순신과 함께 한산도대첩에 참여하여 왜군을 크게 물리치는 공을 세워 전라도 병마절도사에 제수되었다. 1593년 1월에는 전라도 순찰사 권율과 함께 오산의 독산산성에서 왜군을 공격해 경기도 일대를 탈환하였고 2월에는 도원수 권율과 함께 부원수로서 군대를 나누어 금주산과 행주산에 진을 치고 왜군의 공격에 맞서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 뒤 충청병사, 충청수사가 되고 다음 해 황해병사가 되었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남해와 상주에서 왜군에 맞섰으며, 1598년 정유재란 마지막 육상전투인 울산성 전투에서 명나라 군대와 함께 2만여 병력을 이끌고 싸우다 전사했다.

이렇듯 선거이는 임진왜란의 3대 대첩 가운데 한산도대첩과 행주대첩에 모두 참여하여 큰 공을 세웠으나, 이순신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문신들의 견제를 받았으

며, 진주성 전투에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반대파들의 비판을 받았다. 때문에 전란 후 바로 선무공신(宣武功臣)에 녹훈되지 못하고, 1605년 선무원종공신 1등에 추록되는데 그쳤다. 그러다가 1801년(순조 1)에야 충신으로서 그 공훈이 인정되어 정려가 하사되고 1862년(철종 13)에는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그의 묘소는 보성군 조성면 봉능리에 있고, 보성과 고양시의 오충사, 장흥의 포충사에서 추향되고 있다. 여러 기록에 의하면 선거이 장군은 충무공 이순신과 "서로의 자질을 가장 높이 평가했고 가장 절친한 전우"라고 나와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해상과 육상의 최고사령관을 나란히 맡았고, 두 사람 모두 임진왜란을 때를맞는 최후의 전투에서 나란히 순국하였다. 충무공 이순신이 수군통제령에서 함께 군



무하다가 다른 임지로 떠나는 선거이를 아쉬워하며 남긴 시 한편이 전한다.

贈別宣水使居怡
선거이 수사(水使)와 작별하며

北去同勤苦
북쪽에 갔을 때도 같이 일했고
南來共死生
남쪽에 와서도 생사를 같이 했지
一杯今夜月
오늘 밤 달 아래 한 잔 술 나누지만
明日別離情
내일엔 우리 서로 헤어져야 하네

도시재생 원도산마을신문

발행: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재생추진단
편집: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제작: ㈜공감네트워크
인쇄: ㈜예향광주일보
지도교수: 조경완
학생기자: 김다인 김희창 나지우 루신위엔 박효정 송은지 심정윤 한재희

본지는 부정기간행물로서 2019년 10월과 12월 2회 발행하며, 12월 11일 1천부가 인쇄되어 광주광역시 일간지 구독세대 일부와 광산구 주민들에게 무료 배포됩니다. 모든 기사의 책임은 편집자인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있습니다.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인용 및 전제에 한하여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HOONAM UNIVERSITY
호남대학교

추속

(모집 정원 1,000명 이상 대학)
수시모집 경쟁률 6년 연속
광주·전남 사립대 1위

2020학년도 6.5대 1 (사립대 최고)
2019학년도 7대 1 (국공립 포함 최고)
2018학년도 6.34대 1 (사립대 최고)
2017학년도 6.12대 1 (사립대 최고)
2016학년도 6.2대 1 (사립대 최고)
2015학년도 6.07대 1 (국공립 포함 최고)

카카오톡 TALK
@호남대학교입학상담
채널 추가 하세요
광주광역시 광산구 호남대길20 대학본부

꿈이 이루는 행복한 대학, 호남대학교!